

2002/2003년 EU시장 주요 이슈

2002.12

해외조사팀

목 차

1. 실물 유로화 통용	2
2. 유로화, 달러대비 강세 지속될 것인가	6
3. 중.동유럽의 EU 가입 가시화	8
4. EU경제 내년에는 회복되나	15
5. 환경보호조치 강화	17
6.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19
7.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21

1. 실물 유로화 통용

가. 개요

- 2002.1.1. EU 15개국중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제외한 12개국에서 일제히 유로화 화폐를 통용, 경제통합의 최고 수준인 화폐통합을 완성, 궁극적으로는 유럽합중국을 지향
- 유로화는 1999.1.1일부터 사용되었으나 장부상의 통화로서 비현금거래에만 사용되었으며, 실물유로화(지폐 및 동전)가 도입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임.
- 50~150년간 유통되었던 자국 화폐를 폐지하고 공동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한 것은 세계경제사의 획기적 사건의 하나로 기록
- 2002년 1월 이전까지 60억장의 유로 지폐와 375억개의 유로 동전이 주조, 가입국에 배포되었음.
- 2002. 2. 28일부로 유로존의 회원국 통화는 법정통화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3월 1일부터 유로화만 통용되고 있으며, 유로존은 아니지만 스위스 및 북구, 터키, 동구권에서도 사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

나. 유로화 도입에 따른 영향

□ 물가

- 유로존의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실물 유로화 도입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됨.

	2000년	2001년	2002.1/4	2002.2/4	2002.3/4	2002.10월
전체물가지수	2.3	2.5	2.6	2.1	2.0	2.2
- 상품	2.7	2.5	2.2	1.4	1.3	-
- 서비스	1.7	2.5	3.1	3.2	3.3	-

(자료원 : ECB Monthly Bulletin Nov. 2002)

○ 유럽통계청(EUROSTAT)도 지난 7월, 실물 유로화 도입으로 일부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이는 유로존의 물가인상율을 0.2%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에 불과했다고 발표

○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서비스 요금 등 체감 물가지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반응하고 있음.

□ 유로존내 가격격차와 가격통일

○ 유로화 도입으로 유로존에서의 동일 제품에 대한 국가간 가격차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

【 국가별 가격비교 】

품목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샤넬향수 allure	59.92	73.12	67.31	64.62	73.34	72.61	60.16
라코스떼 L1212	64.36	61.30	58.60	64.77	67.14	68.05	69.58
스와치시계 YAS403,Heracles	96.72	89.48	87.15	99.06	82.64	104.37	94.77
DVD Scarface	32.22	25.56	24.00	30.33	27.32	31.74	24.92
파이오니아DVD Player DV-535	328.28	306.27	360.00	379.48	335.21	362.59	353.65
에릭클랜튼 뮤직 CD	19.34	15.33	17.29	19.66	19.63	21.99	16.91

(자료원 : 벨기에 소비자협회)

○ 한편 실물 유로화 도입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가 추구하고 있는 가격
평준화가 실현되기까지는 최소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

- FRB 수석경제학자인 John Rogers는 이론적으로 EU시장내 제품가
격은 2030년이 되어야 완전 수렴될 것이라고 예측

- 국별 소비관습 상이, 내국세율 차이, 구매력 차이 등으로 유로존내
가격평준화가 실현되기가 어려울뿐더러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원
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 프랑스 McDonald's 한 책임자는 유로회원국간 가격 차이는 구매력
차이라기 보다는 소비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가격차이의 10%만이 소비자들의 구매력 차이에서 온다고 설명하
고 있음.

- 벨기에 대형유통체인 DELHAIZE, Colruyd 들도 실물 유로화 도입
과 판매가격 통일 움직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

○ 그러나,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는 사실상 최초로 Serie 7
의 신모델에 대해 유로존내에서는 동일한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정
책을 채택했다고 발표.

□ 실물 유로화 도입이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 2002.1월 유로화를 도입한 국가 중 11개국 17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 집행위 설문조사 결과, 2/3가 실물 유로화 도입이 비즈니스
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변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이 없어지는 효과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 중에서도 과거 국경간 교역을 하지 않던 소규모 기업일 수록 환위험 가능성이 사라져 가입국과의 거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음.

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제품의 품질경쟁력, 브랜드 인지도 확보

- 유로화 도입은 장기적으로는 가격투명성 제고 → 가격경쟁 격화 → 가격인하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한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품질경쟁력, 브랜드 인지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
- 가격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의 품목이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 품목을 발굴, 진출 확대

□ 현지 생산기지 및 물류기지 확보

- EU 국가들은 통화통합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동구, 북아프리카 등 코스트가 낮은 지역에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있음.
- 현재 60% 수준의 역내교역 비중이 유로화 도입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지 생산기지 마련 노력 강화
- 또한 가격경쟁 및 납기단축 등 거래조건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물류 코스트 절감하고 납기단축 등 비가격

요인에서도 경쟁력 확보

-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금융, 회계, 물류 등 Back Office 기능을 유로권내 또는 2004년 EU 가입이 예정되어 있는 동구권 1개국으로 통합
- LG전자는 유럽내 8개 법인의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네델란드 법인에 금융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씨티은행의 자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현지 법인간의 자금을 실시간 상호관리

2. 유로화, 달러대비 강세 지속될 것인가

가. 개요

- 유로화는 장부상의 화폐로 출발한 1999.1.1일 1.1746 달러로 출발했으나 2001년 0.896수준을 보여 도입 당시보다 가치가 하락
- 당초 유로화 강세 전망과는 반대로 출범이후 30% 가량 하락
-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비해 유럽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점과, 당초 출발한 1유로=1.1746달러의 상정이 지나치게 유로화를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금년 들어 유로화는 꾸준한 강세를 보여 2002.12.17일 현재 1유로=1.03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2년후에도 달러화 대비 1:1 등가수준보다 높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미달러 대비 유로 환율 변동 】

2001년	2002.1/4	2002.2/4	2002.3/4
0.896	0.877	0.919	0.984

(자료원 : ECB)

【 향후 달러대비 유로화 환율 전망 】

현재환율 2002.8.12기준	2002.11월말	증감율	2003.8월말	증감율	2004.8월말	증감율
0.978유로	0.999유로	+2.2%	1.023	+4.6%	1.017	+4.0%

(자료원 : Consensus Forecasts)

- 유로화는 경제규모, 경제의 안정성 면에서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 유로존은 전세계 GDP의 16%를 점유함으로써 미국에 이어 2위 경제규모 (미국 21%, 일본 8%)
 -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2000년 유로화 지폐 및 동전이 도입되기 전, 국제거래에서 인보이싱할 때 사용되는 화폐로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7%였음.
 - 그러나 실물 유로화 도입 및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EU의 비중, 수출자 통화로 인보이싱하는 국제거래 관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로화 인보이싱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지불수단으로서의 유로화의 역할 또한 2000년 3/4분기 건수 기준 24%, 금액 기준 36%에서 2001년 3/4분기에는 건수 기준 40%, 금액 기준 48%로 증가하였음.

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국제통화로서의 유로화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환보유, 국제무역 결제시 사용통화,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유로화 비중이 확대될 것임.

- 국제무역에서 유로화 결제비율 확대

- 기업들은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화 결제나 보유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유로화 비중 확대

- 유로화 도입초기 달러결제를 유지해 오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환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외거래시 유로화를 점차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 중.동유럽의 EU 가입 일정 확정

가. 개요

- 세계 최대 지역블록인 EU가 2004.5.1일 중.동구 10개국을 EU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5차 EU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임.

- 1957년 프랑스, 이태리,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EU전신인 EEC 결성
- 1973년 1차 확대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 1981년 2차 확대 (그리스)
- 1986년 3차 확대 (포르투갈, 스페인)
- 1995년 4차 확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 2004년 5월 5차 확대 예정
 - 중.동구 10개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 협상을 진행하였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

□ EU의 중.동구 확대 배경은 정치적 측면, 외교.안보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 정치적 측면

- '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사회주의 체제가 급속히 와해되면서 중.동구 정치 및 사회가 매우 불안해졌으며, 이는 유럽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
-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프랑스, 독일이 주장한 EU 심화론(시장단일화)과 영국이 주장한 EU 확대론(중.동구로의 개방)이 대결, EU는 심화론에 우선 주력하기로 함.
- EU 심화론이 '99년 장부상 유로화 도입, '02년 실물 유로화 도입으로 일단락 된 바, EU 확대론인 중.동구의 EU 편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외교.안보 측면

- 1990년대 초 중.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과거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강한 향수를 가지고 있던 서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EU 확대 거론

- 안보면에서도 중.동구 안정은 서구 안보와 직결되므로 EU 편입을 통해 중.동구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전략 필요

○ 경제적 측면

- 확대를 통해 EU는 인구 3억 8천만명에서 4억 6천만명, GDP 8조 5천억불에서 8조 9천억불, 수출 2조2천억불에서 3조 2천억불로 증가
- EU 입장에서는 생산기지 확보, 소비시장 확대, 기술집약적 제품 수출시장 확보 효과를 볼 수 있음.
- 중.동구 국가 입장에서는 EU로부터의 재정지원,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고용증대, EU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산업 제품의 수출시장 확보 도모 가능
- 1997년 실시된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중.동구의 EU 가입으로 기존 EU 15개국은 100억불의, 신규가입 10개국은 230억불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함.
- EU 집행위가 2001.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EU 확대로 인한 GDP 추가성장률이 중.동구 10개국은 매년 국별로 1.3~2.1%, EU15개국은 매년 0.7%에 달할 것이라고 함.

【 중.동구 10개국을 포함한 EU 현황 】

구 분	2000년	2004년 5월 이후
회원국	15개국	25개국
인구	3억 8,000만명	4억 6,000만명
면적	3,289천 m ²	4,315천 m ²
GDP	8조 5천억불	8조 9천억불
1인당 GDP	22,672불	26,162불
수출	2조 2,000억불	3조 2,000억불
수입	2조 2,000억불	3조 1,000억불

○ 제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면적, 인구, 기존가입국과 신규가입국간 GDP 격차, 문화 및 역사의 다양성 면에서 지난 1~4차 확대와는 현격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음.

○ 결론적으로 EU의 동구확대는 중.동구 국가들로서는 '90년대초부터 시작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작업의 완성을, EU로서는 유럽통합의 한 축인 확대작업의 종결이라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음.

나.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중.동구 국가의 관세율 인하 및 쿼터 폐지로 수출 증가

- EU 수준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EU 공동통상정책 채택에 따라 쿼터제도 폐지로 대 중.동구 수출 증가

-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의 경우 수출증대 예상
예) 헝가리의 경우 승용차 (1500cc이하) 13% → 3.9%, 승용차 (1600~2,000cc) 23% → 6.9%, 자동차부품 6~10% → 3~3.5%, 트럭 25% → 0%, 비디오 및 오디오 10% → 0%로 인하

○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

- EU 확대로 인한 GDP 추가성장률이 국별로 매년 1.3~2.1%에 달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전망

○ 제품 규격 통일로 규격인증 획득비용 절감

- EU 공통 규격인증인 CE 마크 외에 현재 국별로 적용하고 있는 각

중 인증제도가 EU 규격인증으로 통일됨으로써 개별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절감

○ 반덤핑 규제, 원산지 규정 강화 등으로 한국산 전자제품 및 철강 제품은 타격을 입을 소지

○ 자급자족 체제의 심화에 따른 역외무역비중 감소

- 중.동구 국가들의 교역에서 대EU 수출입 의존도는 60~70%에 이르고 있어, 이미 경제적으로 EU에 상당부분 편입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EU의 중.동구 현지투자에 의한 분업체제의 강화로 확대된 EU는 자급자족 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임.

□ 우리나라 현지 투자진출에 미치는 영향

○ EU 수준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며, EU 가입으로 EU 시장 접근이 더욱 용이하게 되어 긍정적으로 작용

- 헝가리의 경우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중심으로서 발달된 사회간접자본, 금융 시스템 등으로 인근 EU 국가에 대한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기회가 매우 큼

- 폴란드의 경우에도 중부 유럽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과 저렴한 숙련 노동력을 바탕으로 EU의 제조업기지화 될 것이 확실, 따라서 폴란드 시장진출은 물론 EU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써의 전략수립에 적극적인 활용 시급

□ 원산지 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등이 예상

○ EU가 '97.1월 도입한 범유럽 누적 원산지지역에 따르면 동지역에 속하는 국가(29개국)에 관세혜택을 받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품가치의 60%가 동지역에서 창출되어야 함.

□ 투자인센티브 축소

○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시 기존의 관세자유지역 내에 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철폐 또는 축소될 예정

□ 유럽기업들의 중.동구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구 국가들의 경제중속 심화

다. EU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 생산기지 확보를 통해 가격경쟁에 대응

○ 중.동구로 신규 진출하거나 유럽내 생산라인을 동구로 이전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갖춘 분업체제를 구축

- 하청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통해 현지 자립체제를 구축할 필요

□ 대우의 생산거점 활용 모색

○ 유럽 유일의 자동차 조립기반인 폴란드의 FSO 공장 활용

- 연간 대유럽 자동차 수출 약50만대이나, 생산기지는 폴란드 공장이 유일

. 메이저들 공히 생산기반 확보중

- 대우자동차 폴란드공장의 매각시 한국기업 승계 반드시 필요

. 폴란드내의 한국자동차 판매 현황: 2001년 6월말 현재 60만대

. 상당 규모의 After market 관리 및 서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반드시 필요

□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물류센터 조성

- 확대된 EU 경제권의 자금자족 체제 심화에 대비하고, 유럽기업들의 중.동구 현지투자를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에 적극 대응
- 경쟁체제 심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물품 인도기간 단축을 통한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류센터 조성

□ 공급자 금융을 통한 진출 확대

- 중.동구 국가의 재정적 빈곤을 감안, 공급자 금융을 통한 진출 확대
- 유럽개발은행(EBRD)의 금융지원 최대한 활용

□ 판매조직을 재정비하여 판매기능을 강화

- 판매법인으로부터 백오피스 기능(고객관리, A/C관리, 금융 등)을 떼어내어 판매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함.
 - Dell과 IBM 등 미국의 정보기기 업체들은 국별 판매조직 대신 권역별 판매조직을 운영
- 재무/금융, 회계, 고객관리 등 백오피스 기능은 범유럽 차원 혹은 권역별로 통합
 - 후보국가로는 네델란드,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가 유력

4. EU경제 내년에는 회복되나

가. 개황

- EU 집행위는 2002.11.13일 “중장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년도 EU지역 GDP 성장률은 1.0%에 머무르며 2003년도에는 금년보다 높은 2.0%, 2004년도에는 2.6%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발표

	2000	2001	2002.1/4	2002.2/4
GDP 성장률	3.5	1.4	0.3	0.7

(자료원 : ECB Monthly Bulletin Nov. 2002)

- 동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EU 경제는 세계경제가 내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여 내년도 약 2.3%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GDP 증가율을 2.0%로 전망
- 내수는 1.8% 성장에 그치고, 상품수출은 5.0%, 상품수입은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EU 집행위가 본 2003년 EU 주요 경제 】

경제지표	전망치 (%)
GDP성장률	2.0
민간소비	1.8
설비투자	2.6
상품수출	5.0
상품수입	5.5
실업율	7.7

□ 한편 유럽경영자들도 2003년도 EU경제에 대해 집행위와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음.

- 미-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안감,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불투명성, 유로화 대비 달러화 약세 지속 여부 등 대외적 여건과 독일 경제의 회복 여부,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안, 중.동구로의 EU 확대 협상 등 대내적 여건으로 2003년 EU 경제성장률은 2.1%에 머물 것으로 전망

□ 반면 12.22일 BBC 인터넷판은 비즈니스지를 인용, 유로화 사용지역의 경제가 침체를 지속, 내년에는 후퇴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도

- 주요은행 분석가들은 금년 4/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이 소비와 산업생산 위축, 경기에 대한 자신감 상실 때문에 정체 상태로까지 둔화됐으며, 내년초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 경기침체의 부분적인 이유는 독일경제의 악화 때문인데, 독일은 수요가 위축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돼 경제난에 직면했으며 내년에 예정대로 증세조치가 실행될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EU는 우리의 3번째 수출대상국이며, 한국은 EU의 11번째 수입상대국으로, EU 경제가 부진할 경우 우리의 수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2002.1-11월중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을 보면 미국 20.2%, 중국 14.2%, EU 13.0%순
- 2002.1-6월중 EU의 역외수입 비중을 보면 미국 18.6%, 중국 7.6%,

일본 6.9%이며 한국은 11위로 2.2% 점유

- EU의 경제 부진 및 무역적자 등에 따라 대외통상압력도 가중 예상
 - 2000년부터 다소 감소하였던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우리와 현안문제가 계류중인 조선산업, 철강에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될 가능성 상존

5. 환경보호조치 강화

가. 개요

- 주요 수출품에 대한 환경마크 기준 강화 및 대상품목 확대
 - TV, 세탁기, 냉장고 등 19개 품목군에 대해 제정되어 있었던 환경마크(에코라벨) 부착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품목도 확대 중
 - 2002. 9월 실내용 페인트와 안료, 매트리스, 복사용지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 강화
 - 인쇄용지, 문구류,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등 33개 품목에 대해서도 환경마크 부여 대상품목군 포함여부를 검토중
- 자동차 폐차처리지침이 발효(2000.10월)되어, 2002.7.1부터 등록되는 신규차량의 경우 폐차 처리시 무료 수거의무가 발효되며, 2007.1월부터는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차를 무료로 수거해야 할 의무가 부과됨.

- 또한 승용차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명기, 자동차 본넷의 안전기준도 강화할 움직임.
- 폐가전제품 무료 수거 및 재활용 의무화 지침이 2002.10월 유럽 의회와 이사회 합의로 사실상 확정, 2003년중 집행위 채택 및 공고 예정
 - 대상품목은 대형 가전제품 및 자동판매기, IT와 통신장비, 소형 가전기기, 조명기기, 의료기기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해당
 - 적용시기는 2006.12.31일부터이며, 이후에는 동지침에 의거 재생, 재사용 비율을 준수하는 제품만 판매 가능
- 기타, 섬유/가죽제품에 아조염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속가공 및 가죽제품에 파라핀(SCCPs)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3년 4월 1일부터 발암성 및 인간 유전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43개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EU는 '환경'을 EU 무역정책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바, EU의 각종 환경보호조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에게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폐가전품 수거 지침 및 폐차 처리 지침 등은 우리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작용
 - 그러나 동 요건을 갖춘다면 여타 개도국 대비 경쟁력 확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음.

6.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 개요

□ EU는 관보를 통해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2002.3.28일자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실시하는 한편, 3.29일자로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

○ 철강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 조치형태 : 관세쿼터
- 쿼타 산정 : 최근 3년간 (1999-2001) 연평균 수입량 절반에서 10% 증량
- 쿼타 방식 : Global Quota
- 조치기간 : 3.29일부터 부과되며, 6개월간 잠정적으로 적용
- 대상 품목 : 15개 철강제품
- 대상국 : 모든국가

○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EU 회원국의 조사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 개시
- 대상품목 : 21개 품목 (상기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15개 품목에 6개 품목을 추가)
- 조사절차 : 동 조사는 3.28일부터 개시되어 조사개시후 9개월내 완료

□ EU 집행위는 9월 27일 3월부터 조사를 개시한 21개 철강제품 중 7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11개 제품은 확정조치 없이 조사종료를, 나머지 3개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

- 확정조치 품목 : Non Alloy Hot Rolled Coils, Non Alloy Hot Rolled Sheets and Plates, Non Alloy Hot Rolled Narrow Strip,

Alloy Hot Rolled Flat Products, Cold Rolled Sheets, Fittings, Glanges

- 확정조치 내역 : 관세쿼터
 - 1차년도 쿼터물량은 최근 3개년간('99~2001) 평균에 10%를 추가하여 설정
 - 2차년도 부터는 5% 증량하고, 쿼터 초과시 추가관세는 품목별로 17.5~26%이며 차년도부터 매년 10%씩 인하되는 것으로 알려짐.
- 조치 기간 : 잠정 세이프가드 종료일로부터 2년 6개월간 ('02.9.8~'05.3.27일)

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금년 9월 확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7개 품목으로,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 강선 등이 확정 조치에서 제외됨으로써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음.
- 금년 1~11월중 대EU 철강제품 수출액은 3억 2,560만불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하였으나, 이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한 영향이라기 보다는 금년도 EU 경제상황이 워낙 부진하여 EU의 전체수입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7.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 개황

- 2002. 12. 20일 현재 EU는 한국산에 대해 11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중이며, 7개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규제중이고 1개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조사중, 3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중임.
 - 반덤핑 규제중(11건) : 칼라TV, 3.5인치 디스켓, 글루타민산 소다, 스테레스 웨스너, 주철제 관연결구류, 칼라TV 브라운관, 전자저울, PET 칩, 폴리에스터 합성 단섬유, PET 필름, 철강제 관연결구류
 - 세이프가드 규제중 : 7개 철강제품 (Non Alloy Hot Rolled Coils, Non Alloy Hot Rolled Sheets and Plates, Non Alloy Hot Rolled Narrow Strip, Alloy Hot Rolled Flat Products, Cold Rolled Sheets, Fittings, Glanges), 모든 국가
 - 상계관세 조사중 : DRAM
 - 세이프가드 조사중 : 3개 철강제품, 모든 국가
- 2000년 이후 EU의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는 많이 감소되고 있으며, 금년들어서는 확정 조치부과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
 - 1997년 45건, 1998년 29건, 1999년 86건의 반덤핑 조사가 신규로 개시되었으나 2000년 31건, 2001년 33건의 반덤핑 조사만 신규로 실시
- 그러나 EU의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 요

건을 입증하기가 용이하게 된 EU 업계가 내년에는 반덤핑 제소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또한 유럽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불공정한 저가 수주를 한다는 이유로 2002.10.21일 WTO에 제소하는 한편, 동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유럽 조선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하였음.